

독서할 때 당신은  
항상 가장 좋은  
친구와 함께  
있다.

일동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 
**지혜의 샘터**  
〈2019-6호〉

발행처 : 일동중학교 도서관  
편집인 : 도서부  
발행주기 : 월 간  
발행일 : 2019.08.29

주소 :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99번길 39 홈페이지:www.ildong.ms.kr Tel.532-3813

도서관에서 알립니다.

- 학생증(대출증)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. 꼭 챙겨서 오세요.
- 도서관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할 여러분의 자산입니다. 책이나 잡지 등은 찢거나 낙서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주세요.

☒ 도서대출 BEST 5!

순위	서명
1	마법군주 인 칼리스타
2	아도니스
3	버림 받은 황비
4	인소의 법칙
5	그녀가 공작자로 가야했던 사정

☒ 다독왕은?

순위	학년 반	이름	대출권수
1	1-3	김OO	28
2	1-3	채OO	15
3	2-2	강OO	11
4	3-2	정OO	9
4	1-2	이OO	9

☒ 다독반은?

순위	학년 반	대출수
1	1-3	34
2	1-4	19
3	2-2	17
4	1-2	16
5	3-1	13

(기간: 2018. 08. 01 ~ 08. 30)

★ 다독왕 5명은 9월 한 달 간  
대출권수를 3권으로 늘려드립니다.

☒ 도서관 이용안내

● 도서관 이용시간

평 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4:30분  
휴관일 : 공휴일, 개교기념일, 전교행사일 등

☞ 수업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.

● 대출

-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.  
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.
- 대출 권수 : 1인 2권
- 대출 기간 : 7일이며, 학습만화 등 모든 만화 형태의 도서는 대출되지 않습니다.
- 대출도서의 연체 시 연체일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.
- 참고도서, 간행물은 반별 수업활용자료로만 대출 가능하며, 개인대출은 불가능합니다.
-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동일도서나 책값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.

# 9월 독서의 달 책축제

1. 『책 빙고』

- 9월 02일(화) ~ 20(금)
- 도서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책을 대출하여 책빙고판 완성하기!!
- 선물 소진 시까지... 쭈욱~~

2. 『책 제목으로 피라미드 쌓기』

- 9월 16일(월) ~ 20(금)
- 두 글자 제목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씩 늘려가며 피라미드 쌓기!
- 반별 대항이며 가장 많이 쌓는 반에 선물 증정\*^^\*

3. 『대출자 행운권 뽑기』

- 9월 16일(월) ~ 20(금)
- 책을 대출하는 학생들에게 행운의 뽑기를 뽑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하며 해당 선물 증정.
- '꽝' 없는 뽑기~ 서두르세요^^

4. 『너의 죄를 사하노라』

- 9월 16일(월) ~ 20(금)
- 도서 연체 해방의 날- 책 연체자 풀어드림!!

일동중학교 지혜의 샘터 도서관

독서 마라톤이 너무 힘들다고?  
그렇다면 '다독상'이라고 들어봤니?

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독상 이벤트!!

다독자에게  
상품을 드립니다.  
(상장 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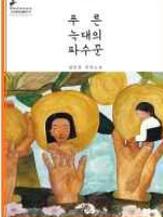
날짜는 7월과 12월  
방학 전입니다.

상품은 정해지지  
않았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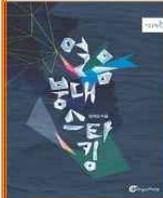


《 9월 추천도서 》

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	이경혜	독자와 나이대가 비슷한 주인공들의 고민과 생각, 평범한 하루하루가 공감력을 높인다. 죽음이라는 소재 때문에 나는 가볍지 않은 대화를 통해 유미가 절친 재준이를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도 한층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다.
	바람의 아이들	

푸른 늑대의 파수꾼 	김은진	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이지만 위안부의 안타까움과 처참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소설이다.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야기를 진행한다. 일제강점기, 위안부, 군함도 등 강제로 징용된 일제강점기 시대의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.
	창비	

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	김중미	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법을 아는 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. 그 속에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. 작가는 고양이 이야기뿐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법을, 기억하는 법을 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한 것 같다.
	낮은산	

얼음붕대 스타킹 	김하은	성폭행을 당할 뻔한 여고생에게 벌어지는 이야기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스위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. 제법 귀여운 남사친은 한계이자 재미. 이 책을 읽으면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을 생각해보게 된다.
	바람의 아이들	